

碩士學位論文

濟州道 中學生의 民主市民性에 관한 調查 研究

指導教授 金 恒 元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社會教育專攻

金 昌 訓

2003年 8 月

濟州道 中學生의 民主市民性에 관한 調査 研究

指導教授 金 恒 元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3 年 5 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社會教育專攻



金昌訓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2003 年 7 月 日

審査委員長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국문초록]

濟州道 中學生의 民主市民性에 관한 調查 研究

金 昌 訓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社會教育專攻

指導教授 金 恒 元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도 중학생들의 민주시민성을 조사·분석함으로써 민주시민의식을 고찰하고 민주시민교육의 기초자료를 얻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지역 중학생 720명을 표집하여 민주주의의 이념, 절차적 원리, 민주적 행동양식 등 3개의 영역을 조사분석하였으며 배경변인별로 의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SPS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주주의 이념에 대해서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국민주권주의에 대한 의식은 비교적 높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이성적 인간으로서의 인간존중에 대한 의식에서는 부정적인 반응(37.6%)이 긍정적인 반응(33.0%)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고, 군 지역이 시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주권의 침해에 대한 의식에서는 부정적인 반응(18.5%)보다 긍정적인 반응(54.9%)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절차적 원리에서는 토론절차의 중요성, 관용의 정신, 비판과 타협, 다수결의 원리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경쟁의 필요성에 대한 조사에서는 지역에 따라 유의한 차가 나타나고 있는데, 제주시 지역이 가장 낮고 북제주군 지역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비판에 대한 의식에서는 긍정적인 경우(29.7%)보다는 부정적인 경우(44.9%)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민주적 행동양식에 대해서는, 준법정신, 공공의식, 참여의식, 의사결정 능력, 책임 의식에 대하여 비교적 높은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질서의식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경우(34.2%)보다 부정적인 반응(41.5%)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갈수록 질서의식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학교 규칙 준수에 대한 의식 조사에서는

* 본 논문은 2003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 논문임.

성별,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가 나타나고 있다. 집단이기주의에 대한 의식조사에서는 찬성하는 경우(51.5%)가 반대하는 경우(12.0%)보다 높게 나타내어 학생들이 집단이기주의에 젖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참여의식에 대한 의식 조사에서는 학교의 중요 결정 참여에 찬성하는 경우(21.8%)보다 반대하는 경우(52.1%)가 높게 나타나 학교생활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에 매우 소극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고, 특히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갈수록 학교의 중요 결정 참여에 관한 의식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위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중학생의 민주시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주주의 이념에서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의 원리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게 의식을 가지고 있어 민주사회 발전에 대한 전망이 밝으나 국민주권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여 주권자로서의 국민과 주권침해에 대한 내용 등 교육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고, 이에 대한 교사의 관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둘째, 민주사회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존중하는 바탕위에서 발전해 나가는 사회다. 따라서 다양한 의견을 서로 조정·통합해 나가는 토론 절차와 비판과 타협, 관용은 민주 사회를 이끌어 가는데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집단과 집단 간의 갈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풍부한 토론 문화를 경험케 함은 물론 사회문제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파악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생중심의 주체적 학습이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가정 및 사회에서 많은 관심이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민주주의에 대한 이념적 측면에서는 충분히 내면화되고 있으나 준법의식, 참여의식, 공공의식, 책임의식 등 행동양식의 측면에서는 더 높은 수준을 나타낼 수 있도록 가정, 학교, 대중매체, 사회가 함께 노력해 민주시민 교육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생활속에서 민주주의를 내면화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목 차

I. 서 론	1
II. 이론적 배경	3
1. 민주시민성의 의미	3
2. 민주시민성의 구성 내용	7
III. 연구 방법	15
1. 조사도구	15
2. 연구대상 및 표집	17
3. 자료처리	18
IV. 연구 결과 및 논의	19
1. 민주주의의 이념	19
2. 절차적 원리	31
3. 민주적 행동양식	44
V. 결 론	60
※참 고 문 헌	63
※Abstract	65
※부 록	67



표 목차

<표 1> 조사도구	16
<표 2> 지역별 질문지 실시대상자와 회수 현황	17
<표 3> 배경변인별 표집인원수	18
<표 4> 인격존중	20
<표 5> 이성적 인간으로서의 인간존중	22
<표 6> 신체적 자유	23
<표 7> 경제적 자유	25
<표 8> 법앞의 평등	26
<표 9> 부의 균등한 분배 문제	28
<표 10> 국민주권	29
<표 11> 주권의 침해	30
<표 12> 중간절차의 중요성	32
<표 13> 사전공개토의	34
<표 14> 경쟁의 필요성	35
<표 15> 견해의 다양성	37
<표 16> 비판의식	38
<표 17> 양보와 타협	40
<표 18> 다수결의 원리	41
<표 19> 소수의견의 존중	43
<표 20> 질서의식	44
<표 21> 학교규칙 준수	46
<표 22> 집단 이기주의	48

<표 23> 더불어 사는 의식	50
<표 24> 선거의 참여의식	51
<표 25> 학교의 중요결정에 참여여부	53
<표 26> 합리적 의사결정과정	54
<표 27> 합리적 소비생활	56
<표 28> 책임의식 정도	57
<표 29> 책임완수 여부	59



I. 서 론

민주주의는 인간 존재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생명권을 포함한 개인의 권리를 존중한다는 점에서 인류 역사상 최선의 가치로 평가받는 정치이념으로서 우리나라는 해방이후 본격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민주발전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해왔고 오늘날 한국사회를 구성하는 근간이 되고 있다. 민주주의가 아무리 좋은 정치제도라 하더라도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현실과 이상과의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제 청소년들이 살아갈 21세기는 정보화·세계화뿐만 아니라 경쟁과 상호의존성, 다양성의 존중되는 사회가 될 것이며, 지식과 정보가 중요시되며 지식을 활용한 경쟁력을 중시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아울러 사회 각 부문에서 많은 사회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속에 적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모든 시민들이 민주적인 사고방식과 태도를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한다. 시민성(citizenship)이란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요구되는 능력과 태도¹⁾를 가리키며 이는 자연적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습 경험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특히 사회현상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사회 지식 습득과 사회 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익히며, 민주사회 구성원들에게 요청되는 가치와 태도를 인식시켜 민주시민으로서 자질 육성을 목표로 하는 사회과 교육은 어느 교과목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 교육은 민주주의 행동양식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보다는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원리나 규범을 익히는 정도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1) 전득주 외(1992), 「현대민주시민교육론」, 서울: 평민사, p. 13.

지식적이고 관념적으로서의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민주시민은 육성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훌륭한 민주시민의식을 가진 바람직한 민주시민성 양성은 학교교육에 부여된 중대한 사명이며 특히 바람직한 민주시민의 양성을 목표로 하는 사회과의 책임이 크다.

사회가 급속하게 변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게 되면 학생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청소년기에 형성된 사회화는 성인기까지 크게 변하지 않고 지속적이 되기 쉽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민주시민성에 대한 의식을 조사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 하겠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교 학생들의 민주시민성을 조사·분석함으로써 민주시민의식을 고찰하고, 중학교에서 민주시민 교육의 기초자료를 제시하려는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민주시민성의 의미

시민성(citizenship)이란 어원적으로 볼 때 시민이라는 ‘citizen’과 자질, 조건이라는 ‘ship’이 합성되어 만들어진 것으로 이 말 속에는 ‘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 이는 개인으로서 요구되는 자질이 라기 보다는 특정한 공동체의 구성원 즉, 시민이라는 지위에서 요구되는 자질을 지칭하는 셈이다. 또한 라틴어로서 CIVITAS는 ‘국가나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인이나 제도가 구성원으로서 수행해야 하는 기능적 역할’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즉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녀야 할 책임, 공동목적, 공동체 의식 등의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이다.²⁾

그런데 시민성(citizenship)이란 개념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어 왔다. 조영달은 시민성이란 시민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시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하는 대상차원(체계관, 이념과 규범, 참여)과 인지적, 감성 지향적, 그리고 평가 결정적(판단과 결정)인 측면으로 이루어지는 의식차원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시민의식은 시민의 역할 측면에서 보면 여론의 형성자, 투표자, 소비자, 기업가, 납세자 등의 여러 측면에서 논의 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³⁾

마샬(T. H. Marshall)은 시민성의 개념을 3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

2) 이해주(1996), “사회교육참여와 민주시민성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p. 13.

3) 조영달(1994), “세계화와 한국사회 공동체의 과제, 세계화, 시민의식, 시민교육”,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시민교육연구소, p. 21.

다.⁴⁾

① 시민적 시민성(civil citizenship) : 개인적 자유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로 재산권, 언론, 사유(思惟), 신념, 계약 체결의 자유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자유의 실천은 정의를 기준으로 실행된다.

② 정치적 시민성(political citizenship) : 정치적 권력행사에 참여할 권리를 의미하며, 국회, 지방의회, 행정부 등의 여기에 해당하며 시민들은 선거권을 행사하거나 피선거권을 통해 행을 행사한다.

③ 사회적 시민성(social citizenship) : 경제적 복지와 안전을 요구하는 권리로부터 문화적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까지를 포함한다. 그는 이 마지막 사회적 시민성을 현대 복지국가에서 추구해야 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상향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개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국가적 차원에서의 탈문맹화를 강조하였다.

듀이(J. Dewey)는 민주사회의 요소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면서 첫째요소는 사회성원이 공유하는 공통 관심사의 수가 많고 종류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상호 관심사의 인정을 사회통제의 방법으로서 더 중요시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둘째 요소는 여러 사회집단 사이의 보다 자유로운 상호작용이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습관이 변화한다는 것 - 다시 말하면, 다양한 상호작용으로 빚어지는 새로운 사태에 맞게 끊임없이 적응하는 것 - 이라고 하였다. 이 두 가지 특성이 바로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직, 운영되는 사회의 특징이다. 민주주의는 단순히 정치 형태만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는 공동생활의 형식이요, 경험을 전달하고 공유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⁵⁾

박동서·김광웅은 민주주의를 복합적이고 다원적인 측면을 갖는 정치이

4) T. H. Marshall(1977), *Class, citizen and social development*, p. 39.: 이해주(1996), 전제 논문, pp. 13-14에서 재인용.

5) J. Dewey(1916), 「민주주의와 교육」, 이홍우 역(1996), 서울:교육과학사, pp. 136-137.

테올로기로 규정하면서 기본적 측면, 제도적 측면, 실천적 측면 그리고 생활태도로 나누어 설명하고 그 중 실천적 측면을 가장 강조하였다. 민주주의를 국민에 의한 정치로 이해한다면 국민의 정치적 참여야말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된다고 하였다.⁶⁾

코헨(C. Cohen)도 민주주의가 원활하게 작동하려면 시민들의 민주적인 생활태도와 행동양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⁷⁾

민주적인 생활태도와 행동양식이란 어떤 의미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는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이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듯이 이 역시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다.

한편 많은 학자들은 이와 같이 민주시민이 갖추어야 할 태도 혹은 자질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라스웰(H. D. Lasswell)은 민주적 태도에 대한 속성으로서 ‘타인에 대한 배타적이고 경직된 태도를 갖기보다는 온화하고 포괄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개방성, 다른 사람과 가치를 공유하는 태도, 일원적 가치보다는 다원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태도, 인간의 잠재력에 대한 신뢰감, 불안으로부터의 해방’⁸⁾을 들고 있다. 레미(R. C. Remy)는 민주시민은 정보를 파악하고 참여를 통하여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정치과정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적나라한 정치 실재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점증하는 세계적 문제(환경 문제, 평화문제, 자유문제, 무역문제 등)를 올바르게 인식하여 합리적인 행위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⁹⁾

미국의 디트로이트 시민교육연구회(Detroit Citizenship Education Study)

6) 박동서·김광웅(1989), “한국인의 민주정치의식”, 서울대학교출판부, pp. 46-49.

7) C. Cohen(1971), *Democracy*, p. 170.; 이해주(1996), 전계논문, p. 17에서 재인용.

8) H. D. Lasswell(1951), *The Political Writing of Harold D. Lasswell*, pp. 495-510.; 전득주 외(1992), 전계서, p. 45에서 재인용.

9) R. C. Remy(1980), *Education Leadership*, pp. 10-11.; 한국교육개발원(1994), 「민주시민교육」, 서울:대한교과서주식회사, p. 225에서 재인용.

는 민주시민이 되기 위해 요구되는 다섯 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¹⁰⁾ ① 훌륭한 시민은 민주주의 이상에 열성을 다한다. 그는 민주적 생활양식에 합치되는 가치관을 신봉하고 이들 가치관계에 의해서 자기행동을 취한다. ② 훌륭한 시민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와야 할 것을 깨닫고 돕는다. ③ 훌륭한 시민은 인간의 기본적 필요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는다. ④ 훌륭한 시민은 가정, 학교, 마을, 국가 및 세계 관계에 있어서 상호의존성을 인정한다. ⑤ 훌륭한 시민은 민주적인 생활과정을 촉진하는 지식, 기능, 능력을 갖고 활동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훌륭한 시민의 자질은 ‘민주적 가치관, 사회문제의 해결, 인간의 기본적 욕구충족, 인간관계의 상호 의존성, 민주사회에 필요한 지식, 기능, 능력을 갖추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영덕은 민주시민성의 기본내용으로 ‘인권존중, 공익을 위한 협동과 봉사, 자유와 책임, 준법, 지적 방법에 대한 신념과 유능한 구사, 가치생활에의 책임있는 참여’를 제시하고 있다.¹¹⁾

한국교육개발원은 바람직한 민주시민성을 ‘현명하고 책임있는 시민’으로 규정하고 이를 구성하는 기본요소로서 ① 인간의 존엄성 ② 기본질서 ③ 자유사회의 절차 ④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으로 나누고 있다.¹²⁾

민주시민이란 한 사회의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민주적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을 행동화 할 수 있는 시민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제까지의 민주시민성에 관한 제 이론들과 연구들을 종합하여 민주시민성을 “민주적 생활태도와 행동양식을 갖춘 시민으로서의 자질”이라 정의하겠다. 여기에서 민주적 생활태도란 민주주의의

10) A. R. Meier(1952), *A Curriculum for Citizenship*, pp. 15-16.; 황영희(2000), “중학생들의 민주시민의식에 관한 조사 연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p. 22에서 재인용.

11) 한승석(1991), “사회과 교육의 민주시민성에 관한 지식과 태도의 비교연구”,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p. 6.

12) 한국교육개발원(1994), 전게서, p. 165.

기본이념에 대한 인식과 절차적 원리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는 것이며, 그 하위요소로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국민주권의 원리 등 주로 규범적 요소와 토론 절차의 중요성, 관용의 태도, 비판과 타협, 다수결의 원리를 중시하는 태도 등 절차적 원리로 규정하였다. 민주적 행동양식이란 민주정치에 적극 참여하는 시민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준법정신, 공공의식, 참여의식, 의사결정능력, 책임의식 등으로 규정하였다.¹³⁾

2. 민주시민성의 내용구성

1) 민주주의의 이념

민주주의의 이념적 원리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¹⁴⁾ 그러나 여기서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국민주권의 원리 등 민주주의가 기초하고 있는 규범적 이념으로 하고자 한다.

(1) 인간의 존엄성

민주주의의 입장은 어떠한 것도 절대적인 것으로 고정시키지 않는 입장이지만 인간의 존엄성은 그 자체가 어떠한 것으로부터도 유래되지 않는 민주주의의 절대적인 존재인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의 문제는 개인의 인격향상, 자율성 보장 그리고 자아를 실현하는 문제와 직결되므로 민주주의가 최대한 보장해야 할 중요한 이념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은 단지 인간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존엄성을 가지며 독립된 인격의 주체로서 존중받아야 한다.

13) 이해주(1996), 전계논문, pp. 18-19.

14) 이정균(1994), 「민주주의론」, 서울:형설출판사, p. 25.

(2) 자유

민주주의의 이념으로서 자유는 개인의 자유와 양립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되는 것이다. 어떤 개인이나 계급만의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특권이며 타인의 자유와 양립하지 않는 자유는 무질서, 혼돈 내지는 방종을 의미하며 참된 자유라 할 수 없다.¹⁵⁾ 자유의 개념을 정의하면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되고 있다. 소극적 의미의 자유로서 외부세력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보호되고 강제나 구속에서 해방된 상태를 뜻하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적극적 의미로서 소유, 완전한 기회, 행동을 위한 권리 등에 대한 의사표현 및 태도를 뜻한다.¹⁶⁾ 물론 자유의 내용이나 성격도 시대에 따라 변해왔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소극적 자유가 아니라 무엇을 하기 위한 자유, 적극적 자유”가 되는 것이다.

(3) 평 등

민주주의 체제에서 평등은 자유와 더불어 핵심을 이루는 개념이다. 평등의 이념은 주로 불평등한 사회에 대한 비판적·저항적인 맥락에서 주창되었던 것으로 시대 변천에 따라 그 개념도 변화하여 국가권력의 구성에 평등하게 참가하고 국가권력에서 차별없이 취급되는 형식적 평등에서 경제적, 사회적, 실질적 평등으로 확대되고 있다.¹⁷⁾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며 법 앞에 평등하다. 그러나 실제로 확실적인 평등은 요구할 수 없고 각자의 능력이나 업적의 차이에 따라 그 보상도 달라야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 사회에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면 빈부의 차가 커져 민주주의 발전의 필수적인 요소인 동질성을 잃게

15) 상계서, p. 40.

16) 신정현(1987), 「민주시민교육론」, 서울:탐구당, pp. 51-52.

17) 이정균(1994), 전계서, pp. 41-42.

되어 계층간의 위화감과 불신을 조장시키고 상대적 박탈감을 가중시켜 민주주의 운영에 장애가 된다.¹⁸⁾

(4) 국민주권주의

주권이란 국가권력 내지는 통치권을 의미한다. 국민주권주의란 이러한 국가 주권의 원천이 한 사람이나 어떤 특정 계급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있다는 원리이다. 국민주권주의는 민주주의를 위한 필연적이고 논리적인 출발점으로 간주되어 왔다. 민주주의 이념에 따라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누리려면 인간 존재의 본질상 국가권력은 무엇보다도 자기 것이어야 한다는 논리가 관철되어야 했던 것이다.¹⁹⁾

2) 절차적 원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이념적 원리뿐만 아니라 이를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과정과 관련된 절차적 원리 또한 중요하다. 민주사회는 다양성을 존중하기에 다양한 의견을 조정하여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 같은 절차적 규범은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주장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민주적 결정과정에서 요청되는 네 가지의 절차적 원리와 행동원리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네 가지의 절차적 규범은 토론절차, 관용의 정신, 비판과 타협, 다수결의 원리 등이다.

(1) 토론 절차의 중요성

18) 김영수(1995), 「민주시민론」, 법문사, p. 134.

19) 이정균(1994), 전게서, pp. 43-44.

민주주의 절차적 규범으로서 보다 중요한 것은 공개적인 토론을 거치는 절차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인격과 개성이 존중되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이므로 시민사회에서 일어나는 신념과 의견의 차이는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하나의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과 목적이 아무리 소망스럽다 하더라도 민주적인 과정이 아니라면 그 정당성을 지키기가 어렵다. 갈등의 해결이 자연스럽지 못할 때는 큰 사회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 갈등을 해결함에 있어 대화와 토론을 통한 평화적 방법이 아니라면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²⁰⁾ 따라서 이 과정을 통해서 각자가 갖고 있는 편견을 확인하고 보다 폭 넓고 다양한 견해를 수용하려는 것은 바로 민주주의적 절차의 핵심이 아닐 수 없다. 합리적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고 믿는 것도 바로 이러한 근거에서 가능한 것이다. 토론의 과정이야말로 민주주의의 토대이며 본질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시끄러운 토론의 소리가 민주주의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관용의 정신

관용이란 어떤 하나의 절대적 가치나 신념을 타인에게 강요해서는 안되며, 개개인의 의견은 다르다는 것과 모두 나름대로 옳은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수용하는 자세라 할 수 있다. 즉 자기와 다른 생활 태도나 행동양식 등을 갖는 사람에 대해 너그러운 자세로 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인지는 모르나 자기와 다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인간이란 원래 불완전한 존재이므로 자기의 생활태도나 의견이 틀릴 수도 있고, 나와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생활양식이 상대적으로 옳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도 관용의 태도로 대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시민의 성품이

20) 정은미(1997), “중등학교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의 방안”,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p. 34.

라 할 수 있다.²¹⁾

특히, 일반적으로 우리사회와 같이 서열이 강조되고 공정한 경쟁이나 진보를 위한 갈등이 제대로 기틀을 잡지 못한 사회에서는 다양한 의견 표출과 이의 경쟁을 통한 합의 과정이 민주주의 성숙을 위해 필요하다. 그 전제로서 관용의 태도는 절대적인 중요성을 지닌다 하겠다.²²⁾

(3) 비판과 타협

민주적 절차에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비판과 타협이다. 어떤 일에 있어서 일에 대한 각자의 시각과 인식의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비판은 보다 창조적인 것을 낳기 위한 과정으로서, 민주사회에서 필수적인 생활태도이다.²³⁾ 따라서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의 의견은 절대적일 수 없으며, 항상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자기의 신념이나 주의 주장 등이 항상 옳다는 태도를 버리고 자기와 다른 신념과 주의 주장도 옳을 수 있다는 생각과 태도를 가질 때 자기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의 타협을 가능하게 한다. 타협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목적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서로 조정함으로써 대립관계를 잠정적으로 해소하는 기술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타협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 일방적으로 또는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자기의 주장과 목적을 반성함으로써 대립된 의견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공통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

(4) 다수결의 원리

다양한 주장이나 의견을 통합하여 잠정적인 합의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21) 김영수(1995), 전계서, pp. 151-152.

22) 한국교육개발원(1994), 전계서, pp. 33-34.

23) 상계서, pp. 34-36.

견해의 대립이나 이해관계의 충돌을 해결해 나가야하는 과정에서 다수결의 원리와 소수자의 원리가 중요한 민주적 절차의 한 원리로 중요하다.

다수결의 원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다수결에 참가한 구성원의 동질성 확보이다. 구성원들은 모두 특정 이해집단의 대표자들로 대표와 피대표 사이에는 밀접한 유대관계가 성립되어 있으며 그들은 사회의 근본이념이나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동질성이 인정될 때 평등성이 확보되는 것이며 평등한 구성원들의 많은 수가 원하는 것이 전체의 의사가 된다는 것은 만족한 사람의 수가 많고 반대로 수가 적기 때문에 다수결은 최상의 절차라고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어떠한 사물의 가치가 누구에게나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라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평등한 다수의 의견이 소수의 의견보다는 더 낫다는 상대주의 가치관에 입각하고 있다. 그러므로 다수는 소수와 의 타협과 양보 및 관용의 미덕으로 토론에 임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복지와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²⁴⁾

의사결정방식에 있어서의 다수결의 원리는 자유롭고 공정하며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표결결과 다수의 의사가 곧 그 조직의 의사로 결정된다는 방식으로 인간의 합리성과 존엄성 존중이라는 민주주의 인간관을 토대로 하여 나온 것이며 토론과정에 있어서도 자유와 평등이라는 두 이념이 동시에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²⁵⁾

3) 민주적 행동양식

민주주의의 개념을 좁은 의미로 해석하며 특정의 정치형태나 정치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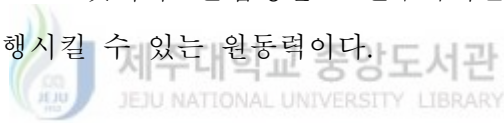
24) 이정균(1994), 전계서, pp. 48-49.

25) 김영수(1995), 전계서, p. 108.

에 한정되지만 넓은 의미에서 보면 국민대중이 스스로 통치하는 민주주의의 어원적 의미 규정으로부터 민주적 정부형태를 밑받침하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생활방식과 행동양식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대 발전할 수 있다. 참다운 의미에서 민주주의가 성숙 발전하려면 정치 영역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생활양식에서도 민주적이라야 한다. 여기에서는 민주적 행동양식으로 규정할 수 있는 요인으로는 준법정신, 공공의식, 참여의식, 의사결정능력, 책임의식 등으로 규정하였다.

(1) 준법정신

준법정신은 협동이나 사회적 책임과는 불가분의 가치이며, 그것은 인권 존중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다. 중요한 것은 외면적,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참여하여 협동적으로 정해진 법 속에서 나의 목적과 행동방식을 발견하며 따르는 것이다. 준법생활은 민주국가를 유지하고 사회발전을 합리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다.



(2) 공공의식

인간은 자신이 속하고 있는 공동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귀속의식 또는 유대감을 갖는다. 특히 남과 더불어 생활하는 민주사회에서는 집단이기주의를 버리고 더불어 생활하고자하는 시민의 의식수준이 높을 때 성공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개개의 시민들이 집단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고 관심을 가질 때 그 사회는 더욱 발전할 수 있다.

(3) 참여의식

시민으로서 최우선적으로 지녀야 할 윤리덕목은 참여의식이다. 참여의식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중시되어야 한다. 물론 모든 사안에 대하여 언제나 참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최소한 참여하고자하는 잠재의식 만큼은 지녀야 할 것이다.

(4) 의사결정 능력

민주사회의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합리적인 사고를 통한 근거있는 판단을 가지고 집단생활에 참여하고 정부운동에 참여함으로써 민주사회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민주사회는 시민의 의식 수준이 높아야만 성공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사회이다. 개개의 시민들이 집단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며 민주적인 의사를 용기있고 솔직하게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²⁶⁾

(5) 책임의식

훌륭한 시민이란 그의 가정과 이웃에서부터 도시와 국가, 그리고 세계로 까지 뻗어 나가는 사회적인 책임의식을 가지고 사회에 참여하는 구성원이라 할 수 있다. 시민은 개인적인 수준에서나 집단적인 수준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지식이 있어야 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행동해야 하며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6) 한승석(1991), 전계논문, p. 8.

III. 연구 방법

1. 조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질문지는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를 참고로 하여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으며 질문 문항은 민주시민성을 나타내는 민주주의의 이념, 절차적 원리, 민주적 행동양식 3 영역으로 구분하였고, 하위영역으로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국민주권주의, 토론 절차의 중요성, 관용의 정신, 비판과 타협, 다수결의 원리, 준법정신, 공공의식, 참여의식, 의사결정 능력, 책임의식 등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민주주의의 이념 8문항, 절차적 원리 8문항, 민주적 행동양식 10문항, 배경조사 4문항 등 총 30문항으로 구성하고 질문지는 Likert식으로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질문지의 구성 내용은 <표1>과 같다.

<표1> 조사도구

구성요소	하위요소	내용	번호
민주주의 이 념	인간의 존엄성	인격존중	1
		이성적 인간으로서 인간존중	2
	자유	신체적 자유	3
		경제적 자유	4
	평등	법앞에 평등	5
		부의 균등한 분배 문제	6
	국민주권주의	국민주권	7
		주권의 침해	8
절차적 원 리	토론절차중요성	중간절차의 중요성	9
		사전공개토의	10
	관용의 정신	경쟁의 필요성	11
		견해의 다양성	12
	비판과 타협	비판의식	13
		양보와 타협	14
	다수결의 원리	다수의견의 존중	15
		소수의견의 존중	16
민주적 행동양식	준법정신	질서의식	17
		학교규칙 준수	18
	공공의식	집단 이기주의	19
		더불어 사는 의식	20
	참여의식	선거의 참여의식	21
		학교의 중요결정에 참여여부	22
	의사결정 능력	합리적 의사결정과정	23
		합리적 소비생활	24
책임의식	책임의식 정도	25	
	책임완수 여부	26	

2. 연구대상 및 표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제주도에 거주하는 중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예비조사는 2002년 12월 19일 남제주군 지역 중학교 남학생 35명과 여학생 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예비조사 결과를 근거로 문항의 신뢰도를 검토·분석하여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문항을 수정·보완하였으며, 2002년 12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으로 나누어 지역별 학생 수에 따라 무작위로 표집하여 제주시 4개교, 서귀포시 2개교, 북제주군 1개교, 남제주군 1개교를 선정하여 각 학교별로 한 학년에 1학급씩 3개 학급을 선정하여 총 24학급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방법은 연구자가 표집대상 학교의 관련교사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질문지를 배부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기입하게 한 후 회수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총 744부를 배부하여 738부가 회수되었다. 그 중에서 응답내용을 신뢰할 수 없거나 부실하게 기재된 것 14부를 제외한 724부를 실제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분포상황은 <표2>와 같다.

<표2> 지역별 질문지 실시대상자와 회수 현황

구 분	배부 학교수	질문지 배부수	회수된 수	통계처리 한 수	회수율(%)
제주시	4	372	370	360	99.5
서귀포시	2	180	178	175	98.9
북제주군	1	96	95	93	96.9
남제주군	1	96	95	96	100
계	8	744	738	724	99.2

<표3> 배경변인별 표집인원수

배경변인	변인구분	인 원	구성비(%)	계
성 별	남	358	49.4	724
	여	366	50.6	
학년별	1학년	241	33.3	724
	2학년	242	33.4	
	3학년	241	33.3	
거주지별	제주시	360	49.7	724
	서귀포시	175	24.2	
	북제주군	93	12.2	
	남제주군	96	13.3	
보호자 학력별	대졸이상	229	31.6	724
	고 졸	349	48.2	
	중졸이하	146	20.2	

3. 자료처리

모든 분석은 SPSS 10.0 for Windows를 이용하여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인 성별, 학년, 거주지역, 보호자의 학력에 따른 학생들의 민주주의 이념과 절차적 원리, 민주적 행동양식의 인식정도를 알아보았다. 이는 독립표본 t 검증과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를 통하여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또한 일원변량분석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조사된

경우에는 사후검정으로 Duncan의 다중비교를 이용하였다. 모든 분석의 유의수준 $\alpha=.05$ 이다.

IV. 연구의 결과 및 논의

본 장에서는 조사도구에서 제시한 26문항에 대한 반응 결과를 영역별 문항 순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논의하려고 한다.

첫째, 각 문항에 대한 전체 응답자의 반응 분포, 반응 경향을 제시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의 배경 변인별 유의한 차가 있는가를 분석하여 그 유의한 차의 결과를 중심으로 반응 경향을 해석하고 논의하며

셋째, 각 영역별 태도 점수를 합산한 후 그 평균을 구한 것을 그 영역에 대한 의식 수준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아 각 배경 변인별 유의한 차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그 유의한 차의 결과를 중심으로 반응 결과를 종합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1. 민주주의의 이념

민주주의 이념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민주적 이념으로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국민주권을 분석하였다. 이상의 네가지 요인은 각각 2가지씩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를 합하여 “민주주의 이념”이란 변수를 만들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존엄성은 인격존중과 이성적 인간으로서의 인간존중에 대해 알아보았다.

(1) 인격존중

인격존중을 측정하기 위하여 “급우를 폭행하거나 돈을 빼앗은 학생은 인격적으로 대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알아보았다. 이는 긍정적인 응답을 한 경우에 인간존중적인 경향으로 나타나 ‘확실히 그렇다’에 5점을 부여하였다.

그 결과 <표 4>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긍정적인 반응은 48.2%이었으며 부정적인 반응은 27.4%로 평균 3.32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은 비교적 인간존중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성별 ($p<.001$)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남학생($M=3.52$)이 여학생($M=3.12$)보다 인간존중의식이 더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4> 인격존중

N	M	SD	반응구분 N(%)				
			확실히 그렇다 (5점)	그런 것 같다 (4점)	잘 모르겠다 (3점)	아닌 것 같다 (2점)	전혀 아니다 (1점)
724	3.32	1.23	144 (19.9%)	205 (28.3%)	177 (24.4%)	133 (18.4%)	65 (9.0%)

배경 변인	변인구분	N	M	SD	t/F
성별	남자	358	3.52	1.23	4.409*** (.000)
	여자	366	3.12	1.21	
학년	1학년	241	3.30	1.25	1.821 (.163)
	2학년	242	3.22	1.23	
	3학년	241	3.43	1.21	
거주 지역	제주시	360	3.41	1.23	2.456 (.062)
	서귀포시	175	3.21	1.21	
	북제주군	93	3.08	1.22	
	남제주군	96	3.41	1.27	
보호자 학 력	대졸이상	229	3.33	1.24	.045 (.956)
	고졸	349	3.30	1.22	
	중졸이하	146	3.34	1.26	

(2) 이성적 인간으로서의 인간존중

다음으로 이성적 인간으로서의 인간존중에 대해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장애인을 보았을 때 못 본척하고 지나간다”라는 내용을 통해 알아보았다. 이는 ‘전혀 아니다’라고 한 경우에 인간존중의식이 높은 것으로 보여 이에 5점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표 5>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이성적 인간으로서의 인간존중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은 33.0%, 부정적인 반응은 37.6%로 조사되었으며 평균 3.03으로 보통정도의 수준이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성별(p<.05)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남자(M=3.52)가 여자(M=3.12)보다 인간존중의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거주지역별로는 유의한 차를 보이지는 않고 있으나 제주시(M=2.92)와 서귀포시(M=2.96)가 북제주군(M=3.33)과 남제주군(M=3.26)보다 의식정도가 낮게 나타나 시지역이 농어촌 지역보다 이성적 인간으로서의 인간존중 의식이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5> 이성적 인간으로서의 인간존중

N	M	SD	반응구분 N(%)				
			확실히 그렇다 (1점)	그런 것 같다 (2점)	잘 모르겠다 (3점)	아닌 것 같다 (4점)	전혀 아니다 (5점)
724	3.03	1.15	46 (6.4%)	226 (31.2%)	213 (29.4%)	139 (19.2%)	100 (13.8%)

배경 변인	변인구분	N	M	SD	Duncan	t/F
성별	남자	358	3.08	1.20		1.142 (.254)
	여자	366	2.98	1.09		
학년	1학년	241	3.01	1.15		.569 (.566)
	2학년	242	3.09	1.21		
	3학년	241	2.98	1.08		
거주 지역	제주시	360	2.92	1.11	a	4.825** (.002)
	서귀포시	175	2.96	1.11	a	
	북제주군	93	3.33	1.30	b	
	남제주군	96	3.26	1.13	b	
보호자 학 력	대졸이상	229	3.01	1.13		.083 (.921)
	고졸	349	3.03	1.12		
	중졸이하	146	3.06	1.24		

Duncan : Duncan's Multiple Comparison(a<b, α=.05)

** p<.01

2) 자유

자유는 신체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통하여 알아보았다.

(1) 신체적 자유

신체적 자유를 측정하기 위하여 “내 친구가 불량학생에게 상습적으로 구타를 당할 경우 나의 안전보다는 친구를 구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알아보았다. 이는 긍정적인 응답을 한 경우에 신체적 자유로 나타나 ‘확실히 그렇다’에 5점을 부여하였다.

그 결과 <표 6>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긍정적인 반응은 51.2%이었으며 부정적인 반응은 9.4%로 평균 3.57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은 신체적 자유에 대한 의식을 비교적 강하게 자리잡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거주지역 ($p<.01$)과 보호자의 학력($p<.05$)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거주지역이 제주도(M=3.46)와 북제주군(M=3.48)은 서귀포시(M=3.73)와 남제주군(M=3.77)보다 인식정도가 낮았으며, 보호자의 학력에 따라서는 중졸이하(M=3.68)가 가장 높았으며 대졸이상(M=3.44)이 비교적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6> 신체적 자유

N	M	SD	반응구분 N(%)				
			확실히 그렇다 (5점)	그런 것 같다 (4점)	잘 모르겠다 (3점)	아닌 것 같다 (2점)	전혀 아니다 (1점)
			724	3.57	.98	135 (18.6%)	236 (32.6%)

배경 변인	변인구분	N	M	SD		t/F
성별	남자	358	3.51	1.04		-1.655 (.098)
	여자	366	3.63	.90		
학년	1학년	241	3.52	.98		.819 (.441)
	2학년	242	3.56	1.03		
	3학년	241	3.63	.91		
거주 지역	제주시	360	3.46	1.00	a	4.652** (.003)
	서귀포시	175	3.73	.91	b	
	북제주군	93	3.48	1.04	a	
	남제주군	96	3.77	.88	b	
보호자 학 력	대졸이상	229	3.44	1.06	a	3.175* (.042)
	고졸	349	3.61	.97	ab	
	중졸이하	146	3.68	.84	b	

Duncan : Duncan's Multiple Comparison(a<b, α=.05)

* p<.05 ** p<.01

(2) 경제적 자유

경제적 자유를 측정하기 위하여 “재산을 많이 물려받은 사람이 일을 하지 않고 먹고 노는 행위는 자유이지만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알아보았다. 이는 긍정적인 응답을 한 경우에 경제적 자유를 강하게 나타나 ‘확실히 그렇다’에 5점을 부여하였다.

그 결과 <표 7>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긍정적인 반응은 83.3%이었으며 부정적인 반응은 8.0%로 평균 4.27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비교적 학생들

은 경제적 자유에 대한 의식을 매우 강하게 자리잡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학년 ($p<.05$)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학년 ($M=4.43$)이 가장 높았으며 2학년($M=4.18$)과 3학년($M=4.20$)은 비슷한 경제적 자유의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경제적 자유

N	M	SD	반응구분 N(%)				
			확실히 그렇다 (5점)	그런 것 같다 (4점)	잘 모르겠다 (3점)	아닌 것 같다 (2점)	전혀 아니다 (1점)
724	4.27	1.02	398 (55.0%)	205 (28.3%)	63 (8.7%)	35 (4.8%)	23 (3.2%)

배경 변인	변인구분	N	M	SD	Duncan n	t/F
성별	남자	358	4.21	1.11		-1.520 (.129)
	여자	366	4.33	.93		
학년	1학년	241	4.43	.86	b	4.535* (.011)
	2학년	242	4.18	1.13	a	
	3학년	241	4.20	1.04	a	
거주 지역	제주시	360	4.22	1.11		1.999 (.113)
	서귀포시	175	4.41	.85		
	북제주군	93	4.15	1.02		
	남제주군	96	4.33	.95		
보호자 학 력	대졸이상	229	4.23	1.06		.558 (.573)
	고졸	349	4.31	1.02		
	중졸이하	146	4.23	.96		

Duncan : Duncan's Multiple Comparison($a<b$, $\alpha=.05$)

* $p<.05$

3) 평등

평등은 법앞에 평등과 부의 균등한 분배문제를 통해 알아보았다.

(1) 법앞의 평등

법앞의 평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반장과 말썽꾸러기가 잘못을 했을 경우 학교규칙에 따라 똑같이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알아보았다. 이는 긍정적인 응답을 한 경우에 법앞의 평등을 더욱 강하게 인지하는 것이므로 ‘확실히 그렇다’에 5점을 부여하였다.

그 결과 <표 8>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긍정적인 반응은 89.4%이었으며 부정적인 반응은 4.7%로 평균 4.56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비교적 학생들은 평등의식 중 법앞의 평등에 대해서는 강한 의식이 자리잡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성별 ($p<.01$)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남학생 ($M=4.46$)이 여학생($M=4.66$)보다 법앞의 평등의식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법앞의 평등

N	M	SD	반응구분 N(%)				
			확실히 그렇다 (5점)	그런 것 같다 (4점)	잘 모르겠다 (3점)	아닌 것 같다 (2점)	전혀 아니다 (1점)
			724	4.56	.90	534 (73.8%)	113 (15.6%)

배경 변인	변인구분	N	M	SD	t/F
성별	남자	358	4.46	1.01	-2.969** (.003)
	여자	366	4.66	.77	
학년	1학년	241	4.50	.98	.880 (.415)
	2학년	242	4.60	.87	
	3학년	241	4.57	.83	
거주 지역	제주시	360	4.50	.99	1.169 (.321)
	서귀포시	175	4.61	.75	
	북제주군	93	4.66	.71	
	남제주군	96	4.60	.95	
보호자 학 력	대졸이상	229	4.54	.96	1.926 (.146)
	고졸	349	4.62	.83	
	중졸이하	146	4.45	.94	

** p<.01

(2) 부의 균등한 분배 문제

부의 균등한 분배 문제를 측정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하면 그만큼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알아보았다. 이는 긍정적인 응답을 한 경우에 부의 균등한 분배 문제에 대한 긍정적인 경향으로 나타나 ‘확실히 그렇다’에 5점을 부여하였다.

그 결과 <표 9>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긍정적인 반응은 94.3%이었으며 부정적인 반응은 2.2%로 평균 4.71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비교적 학생들은 부의 균등한 분배에 대한 강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모든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조사대상자들이 유사한 인식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부의 균등한 분배 문제

N	M	SD	반응구분 N(%)				
			확실히 그렇다 (5점)	그런 것 같다 (4점)	잘 모르겠다 (3점)	아닌 것 같다 (2점)	전혀 아니다 (1점)
724	4.71	.67	575 (79.4%)	108 (14.9%)	25 (3.5%)	11 (1.5%)	5 (0.7%)

배경 변인	변인구분	N	M	SD	t/F
성별	남자	358	4.70	.74	-.517 (.606)
	여자	366	4.72	.60	
학년	1학년	241	4.71	.63	.095 (.910)
	2학년	242	4.72	.70	
	3학년	241	4.70	.69	
거주 지역	제주시	360	4.76	.64	1.382 (.247)
	서귀포시	175	4.65	.74	
	북제주군	93	4.71	.64	
	남제주군	96	4.65	.68	
보호자 학 력	대졸이상	229	4.74	.67	.791 (.454)
	고졸	349	4.68	.73	
	중졸이하	146	4.73	.50	

4) 국민주권주의

국민주권주의에 대해서는 국민주권과 주권의 침해를 통해 알아보았다.

(1) 국민주권주의

국민주권을 측정하기 위하여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므로 정부는 국민의 의결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알아보았다. 이는 긍정적인 응답을 한 경우에 국민주권의식이 강하게 나타내는 것으로 ‘확실히 그렇다’에 5점을 부여하였다.

그 결과 <표 10>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긍정적인 반응은 81.1%이었으며 부정적인 반응은 3.9%로 평균 4.21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이 매우 강한 국민주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학년($p<.05$)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비교적 1학년($M=4.14$)과 2학년($M=4.15$)의 인식정도가 낮았으며 3학년($M=4.33$) 더욱 국민주권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국민주권



N	M	SD	반응구분 N(%)				
			확실히 그렇다 (5점)	그런 것 같다 (4점)	잘 모르겠다 (3점)	아닌 것 같다 (2점)	전혀 아니다 (1점)
724	4.2	.86	319 (44.1%)	268 (37.0%)	109 (15.1%)	23 (3.2%)	5 (0.7%)

배경 변인	변인구분	N	M	SD		t/F
성별	남자	358	4.23	.91		.633 (.527)
	여자	366	4.19	.81		
학년	1학년	241	4.14	.91	a	3.686* (.026)
	2학년	242	4.15	.91	a	
	3학년	241	4.33	.73	b	
거주 지역	제주시	360	4.28	.84		1.986 (.115)
	서귀포시	175	4.14	.85		
	북제주군	93	4.14	.88		
	남제주군	96	4.10	.91		
보호자 학 력	대졸이상	229	4.25	.91		.450 (.638)
	고졸	349	4.19	.82		
	중졸이하	146	4.17	.87		

Duncan : Duncan's Multiple Comparison(a<b, α=.05)

* p<.05

(2) 주권의 침해

주권의 침해를 측정하기 위하여 “강대국이 약소국에 대하여 간섭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알아보았다. 이는 긍정적인 응답을 한 경우에 주권의 침해적인 경향으로 나타나 ‘전혀 아니다’에 5점을 부여하였다.

그 결과 <표 1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주권침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은 54.9%이었으며 부정적인 반응은 18.5%로 평균 2.37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비교적 학생들은 주권침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강하게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성별 ($p<.05$)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남학생 ($M=2.46$)이 여학생($M=2.28$)보다 주권의 침해의식에 더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표 11> 주권의 침해

N	M	SD	반응구분 N(%)				
			확실히 그렇다 (1점)	그런 것 같다 (2점)	잘 모르겠다 (3점)	아닌 것 같다 (4점)	전혀 아니다 (5점)
724	2.37	1.21	233 (32.2%)	164 (22.7%)	193 (26.7%)	94 (13.0%)	40 (5.5%)

배경 변인	변인구분	N	M	SD	t/F
성별	남자	358	2.46	1.30	1.992* (.047)
	여자	366	2.28	1.12	
학년	1학년	241	2.32	1.14	1.305 (.272)
	2학년	242	2.31	1.22	
	3학년	241	2.47	1.28	
거주 지역	제주시	360	2.34	1.26	.436 (.727)
	서귀포시	175	2.34	1.14	
	북제주군	93	2.41	1.16	
	남제주군	96	2.49	1.21	
보호자 학 력	대졸이상	229	2.35	1.24	1.887 (.152)
	고졸	349	2.31	1.20	
	중졸이하	146	2.54	1.19	

* $p<.05$

2. 절차적 원리

절차적 원리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절차적 원리로 토론절차, 관용, 비판과 타협을 분석하였다. 이상의 네 가지 요인은 각각 2가지씩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를 합하여 “절차적 이념”이란 변수를 만들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토론절차의 중요성

토론절차는 중간절차의 중요성과 사전공개 토의를 통해 알아보았다.

(1) 중간절차의 중요성

중간절차의 중요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중간 절차야 어떻게 되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알아보았다. 이는 긍정적인 응답을 한 경우에 중간절차의 중요성에 대해 부정적인 경향으로 나타나 ‘전혀 아니다’에 5점을 부여하였다.

그 결과 <표 1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긍정적인 반응은 62.5%이었으며 부정적인 반응은 17.2%로 평균 3.58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은 중간절차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성별 ($p<.01$)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남학생 ($M=3.47$)이 여학생($M=3.69$)보다 중간절차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중간절차의 중요성

N	M	SD	반응구분 N(%)				
			확실히 그렇다 (1점)	그런 것 같다 (2점)	잘 모르겠다 (3점)	아닌 것 같다 (4점)	전혀 아니다 (5점)
			724	3.58	1.10	46 (6.4%)	78 (10.8%)

배경 변인	변인구분	N	M	SD	t/F
성별	남자	358	3.47	1.20	-2.744** (.006)
	여자	366	3.69	.99	
학년	1학년	241	3.55	1.08	.134 (.874)
	2학년	242	3.60	1.12	
	3학년	241	3.59	1.12	
거주 지역	제주시	360	3.54	1.17	.746 (.525)
	서귀포시	175	3.55	1.10	
	북제주군	93	3.67	.96	
	남제주군	96	3.70	1.01	
보호자 학 력	대졸이상	229	3.55	1.13	.177 (.838)
	고졸	349	3.60	1.11	
	중졸이하	146	3.57	1.07	

** p<.01

(2) 사전공개토의

사전공개토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중요문제를 결정할 때는 사전에 미리 공개하여 토의하는 것보다 몇 사람만이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알아보았다. 이는 긍정적인 응답을 한 경우에 사전공개토의에 대해 부정적인 경향으로 나타나 ‘전혀 아니다’에 5점을 부여하였다.

그 결과 <표 1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사전공개토의에 대해 찬성하는 경우는 55.3%이었으며 반대하는 경우는 17.9%로 평균 3.55로 나타나고 있

다. 이는 비교적 학생들은 사전공개토의에 대한 긍정적인 의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성별($p<.05$)과 학년($p<.05$)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남학생($M=3.46$)이 여학생($M=3.64$)보다 사전공개토의에 대한 의식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년에 따라서는 1학년($M=3.38$)이 인식정도가 가장 낮았으며 2학년($M=3.62$), 3학년($M=3.64$)의 인식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사전공개토의

N	M	SD	반응구분 N(%)				
			확실히 그렇다 (1점)	그런 것 같다 (2점)	잘 모르겠다 (3점)	아닌 것 같다 (4점)	전혀 아니다 (5점)
724	3.55	1.15	169 (5.9%)	87 (12.0%)	193 (26.7%)	232 (32.0%)	169 (23.3%)

배경 변인	변인구분	N	M	SD	Duncan n	t/F
성별	남자	358	3.46	1.24		-2.097* (.036)
	여자	366	3.64	1.05		
학년	1학년	241	3.38	1.20	a	3.874* (.021)
	2학년	242	3.62	1.10	b	
	3학년	241	3.64	1.13	b	
거주 지역	제주시	360	3.61	1.15		1.636 (.180)
	서귀포시	175	3.38	1.12		
	북제주군	93	3.58	1.16		
	남제주군	96	3.58	1.15		
보호자 학 력	대졸이상	229	3.55	1.09		.251 (.778)
	고졸	349	3.57	1.17		
	중졸이하	146	3.49	1.19		

Duncan : Duncan's Multiple Comparison($\alpha < .05$)

* $p < .05$

2) 관용의 정신

관용의 정신은 경쟁의 필요성과 견해의 다양성을 통해 알아보았다.

(1) 경쟁의 필요성

경쟁의 필요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경쟁하는 것은 갈등의 원인이 되므로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알아보았다. 이는 긍정적인 응답을 한 경우에 경쟁의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인 경향으로 나타나 ‘전혀 아니다’에 5점을 부여하였다.

그 결과 <표 14>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경쟁의 필요성에 대한 찬성하는 반응은 57.8%이었으며 반대하는 반응은 15.7%로 평균 3.57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은 경쟁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거주지역 ($p < .05$)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나타나고 있으며, 제주시 ($M=3.47$)가 가장 인식정도가 낮았으며 북제주군($M=3.80$)이 가장 경쟁의 필요성에 대한 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경쟁의 필요성

N	M	SD	반응구분 N(%)				
			확실히 그렇다 (1점)	그런 것 같다 (2점)	잘 모르겠다 (3점)	아닌 것 같다 (4점)	전혀 아니다 (5점)
			724	3.57	1.05	30 (4.1%)	84 (11.6%)

배경 변인	변인구분	N	M	SD	Duncan n	t/F
성별	남자	358	3.49	1.16		-1.822 (.069)
	여자	366	3.64	.93		
학년	1학년	241	3.48	1.02		1.307 (.271)
	2학년	242	3.61	1.07		
	3학년	241	3.61	1.05		
거주 지역	제주시	360	3.47	1.08	a	2.975* (.031)
	서귀포시	175	3.57	1.05	ab	
	북제주군	93	3.80	1.01	b	
	남제주군	96	3.70	.92	ab	
보호자 학 력	대졸이상	229	3.52	1.06		1.081 (.340)
	고졸	349	3.62	1.06		
	중졸이하	146	3.49	1.00		

Duncan : Duncan's Multiple Comparison(a<b, α=.05)

* p<.05

(2) 견해의 다양성

견해의 다양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국가나 사회의 여러 문제에 대하여 사람들의 의견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알아보았다. 이는 긍정적인 응답을 한 경우에 견해의 다양성에 대해 긍정적인 경향으로 나타나 ‘확실히 그렇다’에 5점을 부여하였다.

그 결과 <표 15>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긍정적인 반응은 78.3%이었으며 부정적인 반응은 3.8%로 평균 4.07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은 견해

의 다양성에 대한 매우 긍정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성별 ($p<.001$)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남학생($M=3.52$)이 여학생($M=3.12$)보다 견해의 다양성에 대한 긍정적 의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견해의 다양성

N	M	SD	반응구분 N(%)				
			확실히 그렇다 (5점)	그런 것 같다 (4점)	잘 모르겠다 (3점)	아닌 것 같다 (2점)	전혀 아니다 (1점)
724	4.07	.82	237 (32.7%)	330 (45.6%)	130 (18.0%)	23 (3.2%)	4 (0.6%)

배경 변인	변인구분	N	M	SD	t/F
성별	남자	358	4.09	.89	.879 (.380)
	여자	366	4.04	.75	
학년	1학년	241	3.98	.84	2.136 (.119)
	2학년	242	4.12	.82	
	3학년	241	4.10	.81	
거주 지역	제주시	360	4.08	.84	.255 (.858)
	서귀포시	175	4.02	.84	
	북제주군	93	4.10	.72	
	남제주군	96	4.06	.84	
보호자 학 력	대졸이상	229	4.00	.90	1.277 (.280)
	고졸	349	4.09	.80	
	중졸이하	146	4.13	.75	

3) 비판과 타협

비판과 타협은 비판의식과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1) 비판의식

비판의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불우 이웃돕기 성금을 걷을 때 성금이 올바로 쓰여진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알아보았다. 이는 긍정적인 응답을 한 경우에 비판의식이 낮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전혀 아니다’에 5점을 부여하였다.

그 결과 <표 16>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비판의식에 대해 찬성하는 경우는 29.7%이었으며 반대하는 경우는 44.9%로 평균 2.74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은 비판의식이 비교적 낮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학년 ($p<.001$), 거주지역($p<.01$)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학년($M=2.47$)이 가장 낮았으며 3학년($M=2.98$)이 비교적 높은 경향이었으나 이는 보통이하의 수준이었다. 또한 거주지역에 따라서는 남제주군($M=2.40$)이 가장 인식정도가 낮았으며 서귀포시($M=2.87$)가 가장 비판의식이 높은 경향이었으나 이 또한 보통이하의 수준이었다.

<표 16> 비판의식

N	M	SD	반응구분 N(%)				
			확실히 그렇다 (1점)	그런 것 같다 (2점)	잘 모르겠다 (3점)	아닌 것 같다 (4점)	전혀 아니다 (5점)
724	2.74	1.20	131 (18.1%)	194 (26.8%)	184 (25.4%)	165 (22.8%)	50 (6.9%)

배경 변인	변인구분	N	M	SD	Dunca n	t/F
성별	남자	358	2.61	1.22		-2.783** (.006)
	여자	366	2.86	1.16		
학년	1학년	241	2.47	1.17	a	11.004*** (.000)
	2학년	242	2.76	1.21	b	
	3학년	241	2.98	1.16	c	
거주 지역	제주시	360	2.81	1.21	ac	4.617** (.003)
	서귀포시	175	2.87	1.23	c	
	북제주군	93	2.55	1.12	ab	
	남제주군	96	2.40	1.06	a	
보호자 학 력	대졸이상	229	2.79	1.21		.710 (.492)
	고졸	349	2.74	1.20		
	중졸이하	146	2.64	1.16		

Duncan : Duncan's Multiple Comparison(a<b<c, α=.05)

** p<.01 *** p<.001

(2) 양보와 타협

양보와 타협을 측정하기 위하여 “상대방에 양보하고 타협하는 것보다 자신의 소신을 밀고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알아보았다. 이는 긍정적인 응답을 한 경우에 양보와 타협에 대해서 부정적인 경향으로 나타나 ‘전혀 아니다’에 5점을 부여하였다.

그 결과 <표 17>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양보와 타협에 찬성하는 경우는 44.8%이었으며 반대하는 경우는 24.0%로 평균 3.24가 나타나고 있다. 이

는 학생들은 양보와 타협에 대한 의식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성별 ($p<.001$)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남학생($M=3.10$)이 여학생($M=3.38$)보다 양보와 타협의식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양보와 타협

N	M	SD	반응구분 N(%)				
			확실히 그렇다 (1점)	그런 것 같다 (2점)	잘 모르겠다 (3점)	아닌 것 같다 (4점)	전혀 아니다 (5점)
724	3.24	1.07	51 (7.0%)	123 (17.0%)	226 (31.2%)	249 (34.4%)	75 (10.4%)

배경 변인	변인구분	N	M	SD	t/F
성별	남자	358	3.10	1.14	-3.554*** (.000)
	여자	366	3.38	.98	
학년	1학년	241	3.29	.97	1.549 (.213)
	2학년	242	3.29	1.14	
	3학년	241	3.14	1.10	
거주 지역	제주시	360	3.18	1.09	.910 (.436)
	서귀포시	175	3.25	1.03	
	북제주군	93	3.37	1.08	
	남제주군	96	3.31	1.07	
보호자 학 력	대졸이상	229	3.24	1.06	.035 (.965)
	고졸	349	3.23	1.09	
	중졸이하	146	3.26	1.07	

*** $p<.001$

4) 다수결의 원리

다수결의 원리는 다수결의 원리와 소수의견의 존중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1) 다수의견의 존중

다수의견의 존중을 측정하기 위하여 “나의 생각과 달라도 많은 사람들이 결정하면 이에 따른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알아보았다. 이는 긍정적인 응답을 한 경우에 다수의견의 존중에 찬성하는 경향으로 나타나 ‘확실히 그렇다’에 5점을 부여하였다.

그 결과 <표 18>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다수의견의 존중에 대해 찬성하는 경우는 54.6%이었으며 반대하는 경우는 11.2%로 평균 3.42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은 다수의견의 존중에 대한 긍정적 의식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학년 ($p<.05$)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학년 ($M=3.29$)이 인식정도가 낮았으며 2학년($M=3.55$)이 다수의견의 존중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다수의견의 존중

N	M	SD	반응구분 N(%)				
			확실히 그렇다 (5점)	그런 것 같다 (4점)	잘 모르겠다 (3점)	아닌 것 같다 (2점)	전혀 아니다 (1점)
			724	3.42	1.11	109 (15.1%)	286 (39.5%)

배경 변인	변인구분	N	M	SD	Duncan n	t/F
성별	남자	358	3.41	1.18		-.123 (.902)
	여자	366	3.42	1.03		
학년	1학년	241	3.41	1.18	ab	3.338* (.036)
	2학년	242	3.55	1.08	b	
	3학년	241	3.29	1.04	a	
거주 지역	제주시	360	3.48	1.14		1.330 (.263)
	서귀포시	175	3.39	1.06		
	북제주군	93	3.24	1.06		
	남제주군	96	3.38	1.11		
보호자 학 력	대졸이상	229	3.51	1.10		1.664 (.190)
	고졸	349	3.41	1.09		
	중졸이하	146	3.29	1.13		

Duncan : Duncan's Multiple Comparison(a<b, $\alpha=.05$)

* p<.05

(2) 소수의견의 존중

소수의견의 존중을 측정하기 위하여 “대다수의 의견에 반대되는 견해를 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알아보았다. 이는 긍정적인 응답을 한 경우에 소수의견의 존중에 대해 부정적인 경향으로 나타나 ‘전혀 아니다’에 5점을 부여하였다.

그 결과 <표 19>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소수의견의 존중에 대해 찬성하는 경우는 57.3%이었으며 반대하는 경우는 15.4%로 평균 3.63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은 소수의견의 존중의식을 비교적 많이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학년 ($p<.01$)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학년 ($M=3.45$)이 가장 인식정도가 낮았으며 2학년($M=3.75$), 3학년($M=3.68$)이 소수의견의 존중에 대한 의식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9> 소수의견의 존중

N	M	SD	반응구분 N(%)				
			확실히 그렇다 (1점)	그런 것 같다 (2점)	잘 모르겠다 (3점)	아닌 것 같다 (4점)	전혀 아니다 (5점)
724	3.63	1.11	33 (4.6%)	78 (10.8%)	198 (27.3%)	233 (32.2%)	182 (25.1%)

배경 변인	변인구분	N	M	SD		t/F
성별	남자	358	3.59	1.17		-.871 (.384)
	여자	366	3.66	1.04		
학년	1학년	241	3.45	1.15	a	4.915** (.008)
	2학년	242	3.75	1.10	b	
	3학년	241	3.68	1.05	b	
거주 지역	제주시	360	3.63	1.18		.423 (.737)
	서귀포시	175	3.55	1.06		
	북제주군	93	3.70	.98		
	남제주군	96	3.67	1.06		
보호자 학 력	대졸이상	229	3.66	1.13		.640 (.528)
	고졸	349	3.64	1.11		
	중졸이하	146	3.53	1.06		

Duncan : Duncan's Multiple Comparison($a<b$, $\alpha=.05$)

** $p<.01$

3. 민주적 행동양식

민주적 행동양식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민주적 행동양식으로 준법정신, 공공의식, 참여의식, 의사결정능력, 책임의식을 분석하였다. 이상의 다섯 가지 요인은 각각 2가지씩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를 합하여 “민주적 행동양식”이란 변수를 만들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준법정신

준법정신은 질서의식과 학교규칙준수를 통하여 알아보았다.

(1) 질서의식

질서의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알아보았다. 이는 긍정적인 응답을 한 경우에 질서의식이 대해 부정적인 경향으로 나타나 ‘전혀 아니다’에 5점을 부여하였다.

그 결과 <표 20>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질서의식에 찬성하는 경우는 34.2%이었으며 반대하는 경우는 41.5%로 평균 2.96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은 질서의식이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학년 ($p < .01$)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학년 ($M=2.75$)이 가장 인식정도가 낮았으며 2학년($M=2.98$), 1학년($M=3.14$) 순으로 비교적 질서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0> 질서의식

N	M	SD	반응구분 N(%)				
			확실히 그렇다 (1점)	그런 것 같다 (2점)	잘 모르겠다 (3점)	아닌 것 같다 (4점)	전혀 아니다 (5점)
			91 (12.6%)	209 (28.9%)	176 (24.3%)	137 (18.9%)	111 (15.3%)

배경 변인	변인구분	N	M	SD	Duncan n	t/F
성별	남자	358	2.88	1.31		-1.543 (.123)
	여자	366	3.03	1.21		
학년	1학년	241	3.14	1.29	b	5.766** (.003)
	2학년	242	2.98	1.29	b	
	3학년	241	2.75	1.17	a	
거주 지역	제주시	360	2.92	1.28		1.229 (.298)
	서귀포시	175	2.99	1.25		
	북제주군	93	3.16	1.23		
	남제주군	96	2.84	1.23		
보호자 학 력	대졸이상	229	2.86	1.26		1.624 (.198)
	고졸	349	2.96	1.26		
	중졸이하	146	3.10	1.28		

Duncan : Duncan's Multiple Comparison($a < b$, $\alpha = .05$)

** $p < .01$

(2) 학교규칙 준수

학교규칙 준수를 측정하기 위하여 “학교규칙과 관계없이 머리모양을 내 나름대로 바꾸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알아보았다. 이는 긍정적인 응답을 한 경우에 학교규칙 준수에 대해 긍정적인 경향으로 나타나 ‘확실히 그렇다’에 5점을 부여하였다.

그 결과 <표 2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학교규칙 준수에 대해 찬성하는 경우는 40.1%이었으며 반대하는 경우는 33.1%로 평균 3.11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은 학교규칙 준수에 대한 긍정적 의식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성별($p<.01$), 학년($p<.001$), 거주지역($p<.05$)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나타나고 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M=3.27$)이 여학생($M=2.95$)보다 학교규칙준수에 대한 의식이 높은 경향이었으며, 학년에 따라서는 1학년($M=3.50$)이 2학년($M=2.93$)과 3학년($M=2.90$)보다 학교규칙준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거주지역에 따라서는 북제주군($M=3.43$)이 가장 높았으며 제주시($M=3.08$)와 남제주군($M=2.88$) 순으로 학생들의 학교규칙준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학교규칙 준수



N	M	SD	반응구분 N(%)				
			확실히 그렇다 (5점)	그런 것 같다 (4점)	잘 모르겠다 (3점)	아닌 것 같다 (2점)	전혀 아니다 (1점)
			724	3.11	1.30	131 (18.1%)	159 (22.0%)

배경 변인	변인구분	N	M	SD	Dunca n	t/F
성별	남자	358	3.27	1.36		3.392** (.001)
	여자	366	2.95	1.22		
학년	1학년	241	3.50	1.32	b	17.292*** (.000)
	2학년	242	2.93	1.31	a	
	3학년	241	2.90	1.18	a	
거주 지역	제주시	360	3.08	1.32	a	3.044* (.028)
	서귀포시	175	3.13	1.20	ab	
	북제주군	93	3.43	1.31	b	
	남제주군	96	2.88	1.34	a	
보호자 학 력	대졸이상	229	3.11	1.32		.409 (.665)
	고졸	349	3.14	1.31		
	중졸이하	146	3.03	1.25		

Duncan : Duncan's Multiple Comparison(a<b, α=.05)

* p<.05 ** p<.01 *** p<.001

2) 공공의식

공공의식은 집단 이기주의와 더불어 사는 의식을 통해 알아보았다.

(1) 집단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를 측정하기 위하여 “우리동네가 쓰레기 소각장으로 가장
입지조건이 좋다고 할 때 소각장이 들어선다면 반대하겠다”는 의견을 제시
하여 알아보았다. 이는 긍정적인 응답을 한 경우에 집단 이기주의 경향이

강한 것으로 '확실히 그렇다'에 5점을 부여하였다.

그 결과 <표 2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집단이기주의에 찬성하는 경우는 51.5%이었으며 반대하는 경우는 12.0%로 평균 3.63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은 집단이기주의 의식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학년 ($p<.001$)과 보호자의 학력($p<.05$)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나타나고 있다. 학년에 따라서는 1학년($M=3.84$)이 가장 집단이기주의가 강하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2학년($M=3.63$), 3학년($M=3.43$)의 순이었다. 보호자의 학력에 대해서는 대졸이상($M=3.53$)이거나 중졸이하($M=3.52$)인 경우는 집단이기주의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낮았으나 고졸($M=3.75$)인 경우는 집단이기주의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 집단 이기주의



N	M	SD	반응구분 N(%)				
			확실히 그렇다 (5점)	그런 것 같다 (4점)	잘 모르겠다 (3점)	아닌 것 같다 (2점)	전혀 아니다 (1점)
			200 (27.6%)	173 (23.9%)	264 (36.5%)	60 (8.3%)	27 (3.7%)

배경 변인	변인구분	N	M	SD	Duncan n	t/F
성별	남자	358	3.61	1.17		-.613 (.540)
	여자	366	3.66	.99		
학년	1학년	241	3.84	1.02	c	9.020*** (.000)
	2학년	242	3.63	1.13	b	
	3학년	241	3.43	1.07	a	
거주 지역	제주시	360	3.68	1.10		.351 (.788)
	서귀포시	175	3.58	1.03		
	북제주군	93	3.60	1.05		
	남제주군	96	3.60	1.17		
보호자 학 력	대졸이상	229	3.53	1.13	a	3.939* (.020)
	고졸	349	3.75	1.03	b	
	중졸이하	146	3.52	1.12	a	

Duncan : Duncan's Multiple Comparison(a<b<c, α=.05)

* p<.05 *** p<.001

(2) 더불어 사는 의식

더불어 사는 의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나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알아보았다. 이는 긍정적인 응답을 한 경우에 더불어 사는 의식에 대해 부정적인 경향으로 나타나 ‘전혀 아니다’에 5점을 부여하였다.

그 결과 <표 2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더불어 사는 의식에 대해 찬성하는 경우는 59.3%이었으며 반대하는 경우는 16.8%로 평균 3.53이 나타나

고 있다. 이는 학생들은 더불어 사는 의식이 비교적 높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조사대상자들이 유사한 인식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 더불어 사는 의식

N	M	SD	반응구분 N(%)				
			확실히 그렇다 (1점)	그런 것 같다 (2점)	잘 모르겠다 (3점)	아닌 것 같다 (4점)	전혀 아니다 (5점)
724	3.53	1.07	40 (5.5%)	82 (11.3%)	173 (23.9%)	311 (43.0%)	118 (16.3%)

배경 변인	변인구분	N	M	SD	t/F
성별	남자	358	3.53	1.13	-.026 (.979)
	여자	366	3.53	1.00	
학년	1학년	241	3.59	1.03	2.339 (.097)
	2학년	242	3.59	1.04	
	3학년	241	3.41	1.11	
거주 지역	제주시	360	3.45	1.12	2.512 (.058)
	서귀포시	175	3.55	1.01	
	북제주군	93	3.55	.98	
	남제주군	96	3.78	1.00	
보호자 학 력	대졸이상	229	3.58	1.06	.376 (.687)
	고졸	349	3.50	1.08	
	중졸이하	146	3.54	1.03	

3) 참여의식

참여의식은 선거의 참여여부와 학교의 중요결정에 참여여부를 통하여 알아보았다.

(1) 선거의 참여의식

선거의 참여의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학급에서 반장선거를 할 때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으면 기권해도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알아보았다. 이는 긍정적인 응답을 한 경우에 다소 선거의 참여의식이 부정적인 경향으로 나타나 ‘전혀 아니다’에 5점을 부여하였다.

그 결과 <표 24>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선거의 참여의식에 찬성하는 경우는 53.9%이었으며 반대하는 경우는 27.4%로 평균 3.37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은 선거의 참여의식이 비교적 높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성별 ($p<.05$)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남학생 ($M=3.47$)이 여학생($M=3.27$)보다 선거의 참여의식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 선거의 참여의식



N	M	SD	반응구분 N(%)				
			확실히 그렇다 (1점)	그런 것 같다 (2점)	잘 모르겠다 (3점)	아닌 것 같다 (4점)	전혀 아니다 (5점)
724	3.37	1.24	67 (9.3%)	131 (18.1%)	136 (18.8%)	248 (34.3%)	142 (19.6%)

배경 변인	변인구분	N	M	SD	t/F
성별	남자	358	3.47	1.28	2.097* (.036)
	여자	366	3.27	1.20	
학년	1학년	241	3.43	1.28	2.328 (.098)
	2학년	242	3.45	1.26	
	3학년	241	3.23	1.18	
거주 지역	제주시	360	3.48	1.24	2.140 (.094)
	서귀포시	175	3.23	1.20	
	북제주군	93	3.34	1.27	
	남제주군	96	3.23	1.29	
보호자 학 력	대졸이상	229	3.44	1.24	1.551 (.213)
	고졸	349	3.39	1.22	
	중졸이하	146	3.21	1.29	

* p<.05

(2) 학교의 중요결정에 참여여부

학교의 중요결정에 참여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학생들에 관한 중요한 결정사항의 대부분을 교장선생님이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알아보았다. 이는 긍정적인 응답을 한 경우에 학교중요결정에 참여여부에 대해 긍정적인 경향으로 나타나 ‘확실히 그렇다’에 5점을 부여하였다.

그 결과 <표 25>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학교의 중요결정에 참여여부에 찬성하는 경우는 21.8%이었으며 반대하는 경우는 52.1%로 평균 2.52가 나

타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은 학교의 중요결정에 참여에 대한 긍정적 의식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학년 ($p<.001$)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학년 ($M=2.21$)이 인식수준이 가장 낮았으며 1학년($M=2.73$), 2학년($M=2.62$)의 학교 중요결정에 대한 참여 의식이 비교적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25> 학교의 중요결정에 참여여부

N	M	SD	반응구분 N(%)				
			확실히 그렇다 (5점)	그런 것 같다 (4점)	잘 모르겠다 (3점)	아닌 것 같다 (2점)	전혀 아니다 (1점)
724	2.52	1.22	52 (7.2%)	106 (14.6%)	189 (26.1%)	195 (26.9%)	182 (25.1%)

배경 변인	변인구분	N	M	SD	Duncan n	t/F
성별	남자	358	2.54	1.21		.585 (.559)
	여자	366	2.49	1.22		
학년	1학년	241	2.73	1.21	b	12.635*** (.000)
	2학년	242	2.62	1.31	b	
	3학년	241	2.21	1.06	a	
거주 지역	제주시	360	2.45	1.21		.779 (.506)
	서귀포시	175	2.57	1.19		
	북제주군	93	2.59	1.17		
	남제주군	96	2.61	1.32		
보호자 학 력	대졸이상	229	2.52	1.29		1.778 (.170)
	고졸	349	2.58	1.21		
	중졸이하	146	2.36	1.10		

Duncan : Duncan's Multiple Comparison($a<b$, $\alpha=.05$)

*** $p<.001$

4) 의사결정 능력

의사결정 능력은 합리적 의사결정과정과 합리적 소비생활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1) 합리적 의사결정과정

합리적 의사결정과정을 측정하기 위하여 “반장 선거때 유능하고 현실적인 공약을 내세운 후보자가 있지만 친한 친구가 출마할 경우 그 친구를 찍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알아보았다. 이는 긍정적인 응답을 한 경우에 합리적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부정적인 경향으로 나타나 ‘전혀 아니다’에 5점을 부여하였다.

그 결과 <표 26>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합리적 의사결정과정에 찬성하는 경우는 51.5%이었으며 반대하는 경우는 23.3%로 평균 3.45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비교적 학생들은 합리적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긍정적 의식이 비교적 높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학년 ($p<.001$)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학년 ($M=3.14$)이 1학년($M=3.67$)과 2학년($M=3.55$)보다 합리적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긍정적 의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 합리적 의사결정과정

N	M	SD	반응구분 N(%)				
			확실히 그렇다 (1점)	그런 것 같다 (2점)	잘 모르겠다 (3점)	아닌 것 같다 (4점)	전혀 아니다 (5점)
			724	3.45	1.22	52 (7.2%)	117 (16.2%)

배경 변인	변인구분	N	M	SD	Dunca n	t/F
성별	남자	358	3.49	1.29		.932 (.352)
	여자	366	3.41	1.15		
학년	1학년	241	3.67	1.15	b	13.107*** (.000)
	2학년	242	3.55	1.23	b	
	3학년	241	3.14	1.22	a	
거주 지역	제주시	360	3.41	1.26		.776 (.507)
	서귀포시	175	3.55	1.16		
	북제주군	93	3.37	1.17		
	남제주군	96	3.52	1.22		
보호자 학 력	대졸이상	229	3.34	1.28		2.391 (.092)
	고졸	349	3.55	1.19		
	중졸이하	146	3.38	1.19		

Duncan : Duncan's Multiple Comparison(a<b, α=.05)

*** p<.001

(2) 합리적 소비생활

합리적 소비생활을 측정하기 위하여 “값비싼 옷을 사려는데 돈이 모자라는 경우 친한 친구에게 빌려서라도 그 물건을 사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알아보았다. 이는 긍정적인 응답을 한 경우에 합리적 소비생활에 대해 부정적인 경향으로 나타나 ‘전혀 아니다’에 5점을 부여하였다.

그 결과 <표 27>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합리적 소비생활에 찬성하는 경우는 55.9%이었으며 반대하는 경우는 22.8%로 평균 3.50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의 합리적 소비생활의식이 높음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성별 ($p<.05$)과 학년($p<.001$)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M=3.60$)이 여학생($M=3.40$)보다 합리적 소비생활 의식이 높으며, 학년에 따라서는 3학년($M=3.27$)은 1학년($M=3.70$)과 2학년($M=3.53$)보다 더욱 합리적 소비생활의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 합리적 소비생활

N	M	SD	반응구분 N(%)				
			확실히 그렇다 (1점)	그런 것 같다 (2점)	잘 모르겠다 (3점)	아닌 것 같다 (4점)	전혀 아니다 (5점)
724	3.50	1.23	56 (7.7%)	109 (15.1%)	154 (21.3%)	226 (31.2%)	179 (24.7%)

배경 변인	변인구분	Duncan			t/F
		N	M	SD	
성별	남자	358	3.60	1.22	2.213* (.027)
	여자	366	3.40	1.23	
학년	1학년	241	3.70	1.14	7.682*** (.000)
	2학년	242	3.53	1.30	
	3학년	241	3.27	1.22	
거주 지역	제주시	360	3.46	1.32	.440 (.725)
	서귀포시	175	3.49	1.17	
	북제주군	93	3.59	1.13	
	남제주군	96	3.58	1.09	
보호자 학 력	대졸이상	229	3.41	1.26	2.128 (.120)
	고졸	349	3.60	1.22	
	중졸이하	146	3.42	1.21	

Duncan : Duncan's Multiple Comparison($a<b$, $\alpha=.05$)

* $p<.05$ *** $p<.001$

5) 책임의식

책임의식은 책임의식정도와 책임완수여부를 통하여 알아보았다.

(1) 책임의식 정도

책임의식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자기와 여럿이 소란을 피우다 선생님께 꾸중을 들었을 때 ‘나는 떠들지 않았는데’라는 변명을 늘어놓는 경우는 옳지 못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알아보았다. 이는 긍정적인 응답을 한 경우에 책임의식에 대해 긍정적인 경향으로 나타나 ‘확실히 그렇다’에 5점을 부여하였다.

그 결과 <표 28>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책임의식에 찬성하는 경우는 60.4%이었으며 반대하는 경우는 15.7%로 평균 3.65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의 책임의식이 높음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학년 ($p<.05$)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학년 ($M=3.55$)이 책임의식이 가장 낮았으며 1학년($M=3.79$)이 책임의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8> 책임의식 정도

N	M	SD	반응구분 N(%)				
			확실히 그렇다 (5점)	그런 것 같다 (4점)	잘 모르겠다 (3점)	아닌 것 같다 (2점)	전혀 아니다 (1점)
724	3.65	1.14	189 (26.1%)	248 (34.3%)	173 (23.9%)	70 (9.7%)	44 (6.1%)

배경 변인	변인구분	N	M	SD	Duncan n	t/F
성별	남자	358	3.63	1.24		-.351 (.726)
	여자	366	3.66	1.04		
학년	1학년	241	3.79	1.09	b	3.032* (.049)
	2학년	242	3.55	1.21	a	
	3학년	241	3.59	1.12	ab	
거주 지역	제주시	360	3.67	1.15		.338 (.798)
	서귀포시	175	3.65	1.16		
	북제주군	93	3.54	1.10		
	남제주군	96	3.67	1.15		
보호자 학 력	대졸이상	229	3.71	1.12		1.615 (.200)
	고졸	349	3.66	1.18		
	중졸이하	146	3.50	1.10		

Duncan : Duncan's Multiple Comparison($\alpha < b$, $\alpha = .05$)

* $p < .05$

(2) 책임완수 여부

책임완수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내게 맡겨진 일은 설사 손해가 있더라도 책임을 완수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알아보았다. 이는 긍정적인 응답을 한 경우에 책임완수 여부에 대한 의식에 긍정적인 경향으로 나타나 ‘확실히 그렇다’에 5점을 부여하였다.

그 결과 <표 29>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책임완수 여부에 찬성하는 경우는 63.1%이었으며 반대하는 경우는 10.5%로 평균 3.76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의 책임완수의식이 높음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표 29> 책임완수 여부

N	M	SD	반응구분 N(%)				
			확실히 그렇다 (5점)	그런 것 같다 (4점)	잘 모르겠다 (3점)	아닌 것 같다 (2점)	전혀 아니다 (1점)
724	3.76	1.02	190 (26.2%)	267 (36.9%)	191 (26.4%)	54 (7.5%)	22 (3.0%)

배경 변인	변인구분	N	M	SD	t/F
성별	남자	358	3.81	1.05	1.423 (.155)
	여자	366	3.70	.99	
학년	1학년	241	3.85	.95	1.616 (.199)
	2학년	242	3.75	1.05	
	3학년	241	3.68	1.06	
거주 지역	제주시	360	3.72	1.08	.366 (.777)
	서귀포시	175	3.79	1.00	
	북제주군	93	3.83	.92	
	남제주군	96	3.76	.93	
보호자 학 력	대졸이상	229	3.76	1.02	.327 (.721)
	고졸	349	3.78	1.05	
	중졸이하	146	3.70	.96	

V.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도 중학생들의 민주시민성을 조사·분석함으로써 민주시민의식을 고찰하고 민주시민 교육의 기초자료를 얻는데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 중학교 학생들의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 지역별 학생 수에 따라 8개교, 24학급, 720명을 무작위 추출하여 민주주의의 이념, 절차적 원리 그리고 민주적 행동양식에 대한 태도에 국한하여 고찰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를 통한 이론적 접근과 설문조사를 통한 경험적 접근을 병행하여, 각각의 문항들에 대한 배경 변인별 의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SPS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배경 변인별 집단간의 차이에 대한 통계적 검증은 t 검증과 일원변량분석 방법으로 조사하였는데, 각 영역별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주주의 이념에 대한 의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4개분야 8문항을 제시하였는데, 구체적인 조사결과를 보면,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국민주권주의에 대한 의식은 비교적 높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이성적 인간으로서의 인간존중에 대한 의식에서는 부정적인 반응(37.6%)이 긍정적인 반응(33.0%)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고, 군 지역이 시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주권의 침해에 대한 의식에서는 부정적인 반응(18.5%)보다 긍정적인 반응(54.9%)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절차적 원리에 대한 의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4개분야 8문항을 제시하였는데, 구체적인 조사결과를 보면 토론절차의 중요성, 관용의 정신, 비판과 타협, 다수결의 원리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은 긍정적인 반응을 나

타내고 있다. 경쟁의 필요성에 대한 조사에서는 지역에 따라 유의한 차가 나타나고 있는데, 제주시 지역이 가장 낮고 북제주군 지역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비판에 대한 의식에서는 긍정적인 경우(29.7%)보다는 부정적인 경우(44.9%)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민주적 행동양식에 대한 의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5개분야 10문항을 제시하였는데, 구체적인 조사결과를 보면, 준법정신, 공공의식, 참여의식, 의사결정 능력, 책임의식에 대하여 비교적 높은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질서의식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경우(34.2%)보다 부정적인 반응(41.5%)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갈수록 질서의식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학교 규칙 준수에 대한 의식 조사에서는 성별,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가 나타나고 있다. 집단이기주의에 대한 의식조사에서는 찬성하는 경우(51.5%)가 반대하는 경우(12.0%)보다 높게 나타내어 학생들이 집단이기주의에 젖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참여의식에 대한 의식 조사에서는 학교의 중요 결정 참여에 찬성하는 경우(21.8%)보다 반대하는 경우(52.1%)가 높게 나타나 학교생활에서의 의사결정과정에 매우 소극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고, 특히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갈수록 학교의 중요 결정 참여에 관한 의식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위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중학생의 민주시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첫째, 민주주의 이념에서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의 원리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게 의식을 가지고 있어 민주사회 발전에 대한 전망이 밝으나 국민주권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여 주권자로서의 국민과 주권침해에 대한 내용 등 교육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고, 이에 대한 교사의 관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둘째, 민주사회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존중하는 바탕위에

서 발전해 나가는 사회다. 따라서 다양한 의견을 서로 조정·통합해 나가는 토론 절차와 비판과 타협, 관용은 민주 사회를 이끌어 가는데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집단과 집단간의 갈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풍부한 토론 문화를 경험케 함은 물론 사회문제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파악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생중심의 주체적 학습이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가정 및 사회에서 많은 관심이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민주주의에 대한 이념적 측면에서는 충분히 내면화되고 있으나 준법의식, 참여의식, 공공의식, 책임의식 등 행동양식의 측면에서는 더 높은 수준을 나타낼 수 있도록 가정, 학교, 대중매체, 사회가 함께 노력해 민주시민 교육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생활속에서 민주주의를 내면화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단행본 >

- 김영수(1995), 『민주시민론』, 법문사.
- 김항원(1999), 「제주도민의 정체성」, 제주대학교출판부.
- _____ 외(1999), 「전환기 제주의 의식과 제주정신」, 제주대학교출판부.
- 듀이, J(1916), 이홍우 역(1996), 「민주주의와 교육」, 서울:교육과학사.
- 박동서.김광웅(1989), 『한국인의 민주정치의식』, 서울대학교출판부,
- 신정현 외(1987), 「민주시민교육론」, 서울:탐구당.
- 이정균(1994), 「민주주의론」, 서울:형설출판사,.
- 전득주 외(1992), 「현대민주시민교육론」, 서울:평민사.
- 조영달(1994), 『세계화와 한국사회 공동체의 과제.세계화,시민의식,시민교육』,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시민교육연구소.
- 차경수 (2001), 「현대의 사회과교육」, 서울:학문사.
- 한국교육개발원(1994), 「민주시민교육」, 서울:대한교과서주식회사.

< 논문 >

- 강경희(2002), “제주도 초등학생의 민주시민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강상범(1993), “사회과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의 방안”,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성미(1988), “제주도 고등학생들의 시민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태현(1998),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시민성 교육 내용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김항원(1999), “학교 생활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백론논총」, 제1집.제주대학교.
- 나재철(1998), “사회과 교육에 있어서 민주시민성 교육의 효과에 관한 조사 연구”,

-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 변영남(2001), “중학생들의 민주시민의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손봉호외(1999), “한국의 시민사회와 시민윤리:규범의식 함양을 위한 시민교육 탐색”, 「시민교육연구」, 제28집, 한국사회과교육학회.
- 신선호(1995), “민주시민성 함양을 위한 사회과 교육의 방안”, 석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혜주(1996), “사회교육참여와 민주시민성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이현정(1993), “한국과 미국의 사회과 교육에서의 민주시민성 교육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정은미(1997), “중등학교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의 방안”, 석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 조기수(2000), “학급담임교사의 지도성과 중학생의 민주시민성과의 관계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정운(1998), “민주 시민성 교육 내용의 계열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한승석(1991), “사회과 교육이 민주시민성에 관한 지식과 태도의 비교 연구”,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황영희(2000), “중학생들의 민주시민의식에 관한 조사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Abstract>

A Study of the Democratic Citizenship of Middle School Students in Jeju

Kim, Chang-Hun

Major in Social Studie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 Kim, Hang-Won

This study is designed to survey at the democratic citizenship of middle school students in Jeju island, to take a look at democratic citizenship and to present basic materials. The survey was done by a questionnaire for a total of 720 middle school students in such areas as Jeju-si, Seokwipo-si, Bukjeju-gun and Namjeju-gun in such provinces as the ideologies of democracy, the principles of procedures and the patterns of democratic behavior. And the sampling data was analyzed by statistic program of SPSS with a view to determining the differences of consciousness by background variables.

First, the field of ideologies of democracy shows that they showed a relatively high response in case of their consciousness of human dignity, freedom, equality and people's sovereignty. The consciousness of the respect of humanity as rational human beings indicates that their negative responses(37.6%) were more than their positive responses(33.0%) and that gun areas were higher than si areas. The consciousness of sovereignty violation shows that their negative responses(18.5%) were higher than their positive

responses(54.9%).

Second, the consciousness of the principles of procedures shows that the subjects showed relatively positive responses to the importance of the procedures of discussion, the spirit of tolerance, criticism and compromise, and the principles of decision by majority. The survey on the necessity of competition reveals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areas: the Jeju-si area was the lowest and the Bukjeju-gun area was the highest. The subjects showed more negative responses(44.9%) than positive responses(29.7%) in case of their understanding of criticism.

Third, the patterns of democratic behavior shows that the subjects showed relatively positive responses to the spirit of abiding by the laws, public consciousness, participation consciousness, abilities to make decisions, and a sense of responsibility. However, the subjects showed more negative responses(41.5%) than positive responses(34.2%) in case of consciousness of order. The higher graders had a lower understanding of order than the lower graders. The keeping school rules and regulations shows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y sex and grade. The survey on collective egoism shows that those who consented to collective egoism(51.5%) were more than their counterparts(12.0%). They turned out to fall into egoism. And the participation consciousness shows that those who agreed to their participation in schools' decision making(21.8%) were less than those who objected to it(52.1%), which means that the subjects formed a passive attitude toward their participation in the process of decision making. In particular, this was true as far as the high graders were concerned.

The researcher would like to make the following suggestions to enhance the democratic citizenship of middle school students on the basis of the findings above.

First, the subjects turned out to have a relatively high understanding of the

principles of human dignity, freedom and equality, which implies that our future will be bright in terms of the development of democratic society. But they were lacking in their consciousness of people's sovereignty. Educational measures should be ironed out in relation to the contents of people as sovereigns and violation of sovereignty. Above all, teachers in charge should pay a lot of attention to this problem.

Second, democratic society grows on the basis of respect paid to those who disagree with us.

Therefore it is absolutely necessary to learn the procedures of discussions, criticism, compromise, and tolerance with a view to leading democratic society. Students should have ample experience in relation to the culture of discussions so that they may be equipped with abilities to solve conflict between individuals and individuals, between individuals and groups and between groups and groups. Students should be given chances for self-regulatory and subjective learning and families and communities should pay a lot of attention to them so that they may grasp social issues in a comprehensive fashion and cultivate abilities to make rational decisions.

Third, even though they have internalized democracy in terms of its ideologies, middle school students should be guided to put their conception into practice with the help of cooperative efforts on the part of families, schools, mass media, and society as a whole in terms of such behavioral aspects as the spirit of abiding by the laws, participation consciousness, public consciousness, and a sense of responsibility.

※ 부록

중학생의 민주시민성에 관한 질문지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질문지는 중학생들의 민주시민성에 관한 의식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응답에는 맞고 틀림이 없으며 응답한 내용은 연구 목적이외에는 일체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문내용을 잘 읽고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생각에 가장 가까운 번호에 한 문항도 빠뜨림없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002년 12월 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사회교육 전공 4학기

김 창 훈

※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면 1. 확실히 그렇다 2. 그런 것 같다 3. 잘 모르겠다 4. 아닌 것 같다 5. 전혀 아니다 에 ○ 표를 해주십시오.

번호	문항내용	확실히 그렇다	그런 것 같 다	잘 모르 겠 다	아 닌 것 같 다	전 혀 아 니 다
1	급우를 폭행하거나 돈을 빼앗은 학생은 인격적으로 대할 필요가 없다.	1	2	3	4	5
2	횡단보도를 건너는 장애인을 보았을 때 못 본척하고 지나간다.	1	2	3	4	5
3	내 친구가 불량학생에게 상습적으로 구타를 당할 경우 나의 안전보다는 친구를 구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	1	2	3	4	5
4	재산을 많이 물려 받은 사람이 일하지 않고 먹고 노는 행위는 자유지만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5	반장과 말썽꾸러기가 잘못했을 경우 학교규칙에 따라 똑같이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6	열심히 일을 하면 그만큼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7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므로 정부는 국민의 의결에 따라야 한다.	1	2	3	4	5
8	강대국이 약소국에 대하여 간섭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어쩔 수 없다.	1	2	3	4	5

번호	문항내용	확실히 그렇다	그런 것 같다	잘모르 겠다	아닌 것 같다	전혀 아니다
9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중간 절차야 어떻게 되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	1	2	3	4	5
10	중요 문제를 결정할 때는 사전에 미리 공개하여 토의하는 것보다 몇사람만이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	1	2	3	4	5
11	경쟁하는 것은 갈등의 원인이 되므로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다.	1	2	3	4	5
12	국가나 사회의 여러 문제에 대하여 사람들의 의견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당연하다.	1	2	3	4	5
13	불우 이웃돕기 성금을 걷을 때 성금이 올바르게 쓰여진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14	상대방에 양보하고 타협하는 것보다 자신의 소신을 밀고 나가야 한다.	1	2	3	4	5
15	나의 생각과 달라도 많은 사람이 결정하면 이에 따른다.	1	2	3	4	5
16	대다수의 의견에 반대되는 견해를 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1	2	3	4	5
17	우리나라에서는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18	학교규칙과 관계없이 머리모양을 내 나름대로 바꾸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다.	1	2	3	4	5

번호	문항내용	확실히 그렇다	그런 것 같다	잘 모르 겠다	아닌 것 같다	전혀 아니다
19	우리 동네가 쓰레기 소각장으로 가 장 입지조건이 좋다고 할 때 소각 장이 들어선다면 반대하겠다.	1	2	3	4	5
20	이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나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21	학급에서 반장선거를 할 때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으면 기권해도 된다.	1	2	3	4	5
22	학생들에 관한 중요한 결정사항의 대부분을 교장 선생님이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	1	2	3	4	5
23	반장선거때 유능하고 현실적인 공 약을 내세운 후보자가 있지만 친한 친구가 출마할 경우 그 친구를 찍 겠다.	1	2	3	4	5
24	값비싼 옷을 사려는데 돈이 모자라 는 경우 친한 친구에게 빌려서라도 그 물건을 사겠다.	1	2	3	4	5
25	자기와 여럿이 소란을 피우다 선생 님께 꾸중을 들었을 때 ‘나는 떠들 지 않았는데’라는 변명을 늘어놓는 경우는 옳지 못하다.	1	2	3	4	5
26	내게 맡겨진 일은 설사 손해가 있 더라도 책임을 완수한다.	1	2	3	4	5

※ 다음 중에서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해 주십시오.

27. 성별 : 남자() 여자()

28. 학년 : 1학년() 2학년() 3학년()

29. 거주지역 :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30. 보호자 학력 : 대졸이상() 고졸() 중졸이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